

“박인엽씨는 왜 자살했을까?”하고 수도경찰청의 형사반장 남무송경감은 혼자 중얼거렸다.

남경감은 천장 대들보에서 내려 온 로프에 대롱대롱 매달린 시체를 주의깊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곳은 한강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자리한 박인엽씨 별장 2층이었다. 죽은 사람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 일부는 실크로 된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지난 밤 경찰에 전화로 알려 온 사람은 박인엽씨며 주방장인 김하수씨였다. 그는 남경감에게 박인엽씨가 전날 저녁 별장에서 가면 무도회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파티의 테마는 ‘오페라의 환영’이라는 것으로 참석한 사람은 거의 모두가 가면과 망토를 입었다고 말했다.

“제가 마지막 보였을 때 박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10시경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삼폐인 병을 가지러 주방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김하수씨는 그때 주방을 청소하느라고 몹시 분주했으며 파티가 끝날 때까지

박박사를 다시 보지 못하다가 열린 침실문을 통해 시체를 보았다고 말했다.

남경감은 주방장을 내보낸 뒤 방에 혼자 남아 사건현장을 다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두루마리자로 측정을 하기 시작했다. 대들보의 높이는 마루바닥에서 4.5m 이었는데 남경감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그는 올라 탈 것이 없나 하고 방안을 두리번 거리다가 뒤쪽 책장에 기대 놓은 서가용의 이동식 사닥다리를 발견했다. 용단의 흔적으로 보아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닥다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다. 남경감은 사닥다리를 옮겨 놓은 뒤 타고 올라가서 대들보에 묶인 로프의 매듭을 찬찬히 살펴 보았다. 로프는 매듭에서 올라미까지의 길이가 1.8m였다.

축 늘어진 시체 바로 아래에는 뒤집힌 책상의자가 있었다. 남경감은 죽은 사람이 이 의자위에 서 있다가 목을 맨 뒤 뛰어 내린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런데 거인이라면 몰라

도 죽은 사람 정도의 체구를 가지고는 천장의 대들보까지 손이 닿기에는 의자의 높이가 너무 낮았고 60cm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았다.

남경감이 관찰결과와 기록을 막 끝냈을 때 형사 한명이 들어와서 문앞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기자들은 박인엽씨 자살사건을 보고하는 경찰무선통화를 엿듣고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경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매체에 대한 발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인엽씨는 세계 정상급의 로켓 설계가였으며 다음주에 우주여행에 혁명을 가져 올 새로운 엔진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때 별장앞에 귀청이 찢어질듯한 급 브레이크소리

를 내면서 차 한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턱시도와 망토를 입고 있었다. 그는 무슨일이 생겼는가고 다그쳐 물었다.

“택은 누구시요?” 남경감이 물었다. “나는 박인엽이 올시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남경감은 박인엽씨의

손을 잡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가서 침실로 들어갔다.

“선생께서 박인엽씨라면 저사람은 누군가요?” 남경감은 시체쪽을 손짓했다. 박인엽씨는 죽은 사람은 그날 밤 별장에서 목기로 한 초대객인 노만석씨라고 밝혔다. “저렇게 가면을 썼으니 주방장이 나를 노씨로 착각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노씨와 나는 키도 같고 체중도 같았으니까요.”

박인엽씨는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제일교포 과학자인 노만석씨는 얼마전 서울에 왔는데 전날 밤 박인엽씨의 파티에 초청되었다. 노씨와 부인 김소영씨, 노씨의 연구보좌역인 민애라씨는 그날 저녁 별장에서 자고 가기로 하고 초대되었다. 노만석씨는 술을 너무 마셨기 때문에 먼저 실례하겠다고 말하면서 2층으로 올라 갔다는 것이다. 박인엽씨는 파티가 끝나자 그의 신형 로켓 이야기를 실은 조건 신문을 사려고 별장 앞동네에 있는 편의점에 갔다고 말했다.

이윽고 검시관이 검시결과를 발표했다. 시체에서는 의심나

함께 푸는 미스터리<6>

가면을 쓴 시체

는 반점이나 상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사망 원인은 목맨 것이었다.

그 뒤 조사를 통해 남경감은 박인엽씨와 노만석씨는 일본에서 신형 로켓엔진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가 실패로 끝나자 박인엽씨는 혼자 귀국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계속했고 노만석씨도 일본에서 하던 연구를 계속했다. 일본에서 박씨와 노씨의 연구를 도왔던 여성과학도 민애라씨는 노씨부부와 함께 이번엔 박인엽씨의 신형 로켓개발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에 온 것이다.

노씨가 죽은날 밤 박인엽씨의 서재를 조사한 형사들은 노씨의 이름이 기재된 여러 장의 엔진계획서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이 계획서에 관한 질문을 받은 박인엽씨는 그런 것을 본 일도 없다고 말하며 그런 사실을 부인했다. 파티에 참석했던 다른 초청객들은 박인엽씨가 먼저 성공한 데 대해 노만석씨는 매우 우울한 표정이었다고 말하며 노만석씨가 자살을 한 것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남경감은 노만석씨는 살해된 것이며 살인을 자살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 만약에 살인이었다면 살인범은 파티가 끝난 뒤 별장에 남았던 노씨의 부인 김소영씨, 주방장인 김하수씨, 보좌역인 민애라씨 그리고 주인인 박인엽씨 등 네사람중의 한사람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중에서 김소영씨는 일차적으로 혐의자로 떠 올랐다. 남편 노만석씨가 일화 10억엔의 생명보험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혜자가 될 김소영씨가 돈때문에 남편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김소영씨, 김하수씨 그리고 민애라씨는 모두 노만석씨가 2층으로 올라갔을 때부터 함께 주방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하수씨는 시체를 발

견했을 때 1~2분간 주방을 떠났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유일한 혐의자는 박인엽씨였다.

남경감은 경찰이 침실에서 제거한 로프와 노만석씨의 체격과 흡사한 마네킹을 함께 들고 별장으로 되돌아갔다.

남경감은 박인엽씨를 데리고 침실로 가 이동식 사닥다리를 대들보 아래쪽에 옮겨 놓았다. 그는 사닥다리 꼭대기로 올라선 뒤 로프를 대들보에 비끼러매고 한쪽 끝은 울가미를 만들어 마네킹 목에 걸었다. 그는 로프 한쪽 끝에 마네킹을 대롱대롱 매달고 살인사건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 마네킹은 노만석씨의 키와 같은 1백73cm 입니다. 로프는 매듭에서 울가미까지 1.8m입니다. 그래서 노만석씨의 키를 보태면 모두 3m 53cm가 됩니다.”

“박박사님, 이런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대들보의 높이는 4.5m이기 때문에 매달린 시체와 바닥간의 공간은 97cm가 남게 됩니다.” 남경감은 재빨리 몸을 움직여서 책상의자를 마네



킹밀에 놓았다. 의자의 시트는 바닥에서 60c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자의 시트와 마네킹사이에는 아직도 37cm의 공간이 남아 있었다.

“노만석씨가 이 의자에 올라선 뒤 뛰어 내려 목을 맨 것은 분명 아닙니다. 박박사는 곧장 신문을 사려고 외출하지 않았 습니다. 대신 2층으로 올라가서 만취한 노만석씨를 그의 방에서 끌어내어 목을 매달고 그의 계획서를 훔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외출한 것이지요, 당신을 노만석씨 살해범으로 체포합니다.”

바로 이때 저명한 범죄학 전문가 최을교수가 사건에 개입하여 박인엽씨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게 된다. 과연 그는 어떻게 사건을 풀어 나갔을까?

〈春堂〉

〈해답은 90쪽에〉